

간추린 청렴 소식

[1] 대검, '2025년 상반기 현장점검' 실시



대검찰청 감찰부는 올해 자체 청렴도 측정을 위해 '25. 4.부터 총 14개 청에 대한 상반기 현장 점검 및 부진 청 특별점검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장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 청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목포지청, 전 직원 '기관장 청렴교육' 실시

목포지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장이 직접 청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직원들의 내부청렴도 향상에 힘썼습니다.



행동강령책임관 등 전 직원이 참석하여 반부패법령 주요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3] 홍성지청, '부패 날려버려, 청렴 야구'



홍성지청은 기관장 및 직원들이 제출한 청렴 문구를 뽑아 외친 후, 날아오는 공을 부정, 부패로 생각하고 배팅하는 청렴 야구를 통해 청렴 의식을 높였습니다.

부패 아웃! 청렴 홈런!

[4] 고양지청, '1분기 청렴간담회' 실시

고양지청은 청렴업무전담팀 간담회를 통해 형사조정실 바닥 이정표 교체, 종합민원실 친절 카드 홍보 안내문 부착 등 민원 환경 개선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간담회 채택 안건의 이행상황도 공유하며 실질적인 청렴간담회 운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알아두세요

2024년도 국가청렴도 발표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최근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청렴도는 1995년부터 매년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변동 추이('13년~'24년)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점수	55	55	54	53	54	57	59	61	62	63	63	64
순위	전체 46/177	44/175	43/168	52/176	51/180	45/180	39/180	33/180	32/180	31/180	32/180	30/180
OECD	27/34	27/34	28/34	29/35	29/35	30/36	27/36	23/37	22/38	22/38	22/38	21/38

이번 우리나라의 점수와 순위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1점과 2단계 상승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30위를 차지했습니다. OECD 가입 38개국 중에서도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21위로 올라섰습니다. 지속적인 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반부패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검찰 전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 『Monthly 청렴 제130호(2024.5.)』를 참고하세요^^

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

감성충전, 청렴 명대사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연애편지 쓰듯 했다.
한 자 한 자 배려하고 공들였다.
남은 한 번만 잘해줘도 세상에 없는 은인이 된다.

그런데 백만 번 고마운 은인에게
낙서장 대하듯 했다.
말도 마음도 고르지 않고 튀어나왔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서 엄마와 전화통화를 하던 딸이 퀘스레 화를 내는 장면에서 흐르는 위 내레이션은,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 소중했던 것들을 얼마나 잊고 사는지 새삼 깨닫게 합니다. 먼 사이일수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말 한마디에도 공을 들이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무심하게 구는 이유는 당연한 존재라는 믿음 때문이었지요. 오랜 시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일수록 우리는 그 가치를 가벼이 여기게 됩니다. 공직자에 대한 신뢰 또한 이와 같아, 낙서장 대하듯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연애편지 쓰듯 정성을 다해 지켜야 할 것입니다 ☺

청렴 상식이 쑥쑥!

부패방지협약(UNCAC)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이란?

- ✓ 정식명칭: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 제정연도: 2003년 ※ 발효연도: 2005년
- ✓ 주관기관: UN(국제연합, United Nations)
- ✓ 가입국: 190개국 이상(한국도 2008년에 가입)

UNCAC는 전 세계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부패 사건을 수사·처벌하며, 부정부패로 유출된 자산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엔 차원의 최초이자 유일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UNCAC 주요내용>

- ① 부패 예방 ② 부패 범죄화 및 법 집행 ③ 국제 협력
- ④ 부패로 인한 자산 회수 ⑤ 기술 지원 및 정보 교류



실제 적용 사례

✓ 나이지리아 전 대통령 부패 자금 회수

나이지리아의 전 대통령 사니 아바차는 재임 중에 약 50억 달러(6조 7천억 원)를 스위스 등 해외 계좌로 빼돌렸고, UNCAC의 자산 회수 조항을 근거로 스위스 정부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나이지리아로 반환된 부패 자금은 현재까지 약 36억 5천만 달러(5조원 이상)에 달함

✓ 오데브레히트(Odevrecht) 사건

브라질 건설사 오데브레히트가 브라질을 포함한 12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계약을 따낸 사실이 UNCAC에 적발되면서 미국, 스위스, 브라질 정부가 공조 수사를 진행하였고,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를 포함하여 여러 고위 관료가 수감되었던 사건



한계점 및 도전과제

- ✓ 강제성의 부족: UNCAC에 가입했지만 여전히 부패가 심각한 나라(예: 북한, 러시아,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부패 수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등의 한계
- ✓ 자산 회수 절차의 복잡성: 부패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경우 돌려보내는 절차가 오래 걸리며, 일부 국가는 법적 미비로 인해 자산 회수를 제대로 못하는 등의 한계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청렴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운 겨울에도 가장 먼저 피어나 봄을 알리는 이 꽃은 찬 서리를 견뎌내고 꽃을 피우는 모습이 마치 청렴한 선비의 기개와 같아, 예로부터 고고한 절개와 청렴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이 꽃은 무엇일까요?

- ① 개나리 ② 벚꽃 ③ 매화

※ 힌트: Monthly청렴 2025년 3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3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2025. 4. 20.까지

★ 응모방법: 700spo69a@spo.go.kr

3월호 퀴즈 정답은 ① **외지부** 입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3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



축! 당첨 강OO(수원고검), 박OO(대검), 정OO(외부)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2008년 3월 27일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에 가입하면서 국제 반부패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고, 여러가지 제도 변화 발생

✓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2008년)

반부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커진 대한민국은 기존의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 위원회를 통합하여 부패방지, 공익신고 보호, 청렴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설립

✓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16년)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년)

UNCAC 가입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CPI)는 개선 되는 모습을 보여오고 있으나, 법 집행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반부패 의식을 향상하는 등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청렴, 맑고 깨끗하고 향기롭게